

광주FC 9위로 '잔류'...아침 도전은 계속된다

K리그1 최종라운드, 전북과 1-1...신창무 페널티킥 성공 14승5무19패 마감...27일 상하이 선화와 ACLE 5차전



광주FC가 7957명의 팬 앞에서 2024시즌을 마무리했다.

광주가 24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북현대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38라운드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후반 29분 전북 티아고에게 선제골을 내준 광주는 후반 추가 시간에 기록된 신창무의 페널티킥으로 지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올 시즌 광주의 성적은 14승 5무 19패(승점 47)가 됐고, 8위 대전하나시티즌에 승점 1점 차 뒤진 9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앞선 37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잔류를 확정했던 광주는 '10위' 수성을 목표로 한 전북과 팽팽한 승부를 펼쳤다.

전반 3분 만에 광주가 골대를 맞이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정호연이 올려준 공을 받아 문민서가 헤더를 시도했지만 골대에 맞았다.

전반 13분에는 안혁주가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대 오른쪽으로 공이 빠져나갔다.

이어진 공격에서 이건희가 중원에서 올라온 공을 쫓았지만 킥퍼 김준홍이 한 걸음 빨랐다. 기회를 놓친 뒤 전북의 공세가 이어졌다.

전반 16분 김진규의 오른발 슈팅이 나왔고, 김경민이 공을 쫓아냈다. 17분에는 박재용의 헤더가 골대 맞고 나가면서 광주가 한숨을 돌렸다.

전반 25분 다시 한번 이건희에게 시선이 쏠렸다. 상대의 실수로 공을 잡은 이건희가 킥퍼를 마주하고 오른발 슈팅을 날렸지만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이후 몇 차례 두 팀은 슈팅을 주고받은 끝에 득점이 0-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했다.

후반 시작과 함께 광주 이정호 감독이 3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해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안혁주, 문민서, 이건희를 불러들인 이정호 감독은 이희균, 신창무, 허을을 투입했다.

후반 시작과 함께 팽팽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그리고 후반 9분 광주가 코너킥 상황을 맞았지만, 두현석의 슈팅이 골대를 벗어났다.

후반 13분 프리킥 상황에서 최경록이 왼발로 띄운 공이 변준수의 머리로 연결됐지만 이번에도 골망은 흔들지는 못했다.

이후 전북 이영재가 연달아 슈팅을 날리면서 광주를 압박했다.

광주는 신창무의 왼발 슈팅으로 전북 골대를 노렸지만, 킥퍼를 넘지 못했다.

그리고 후반 29분 실수가 실점으로 연결됐다. 광주 진영에서 변준수와 안영규가 제대로 공을 쳐 내지 못했고, 권창훈 맞은 공이 티아고 앞으로 향했다.

티아고의 왼발로 때린 공은 이내 광주 골대를 가르면서 팽팽한 0의 균형을 깨졌다.

이어진 공격에서 바로 정호연이 슈팅을 날리며 응수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하지만 후반 종료 직전 광주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공을 몰고 전북 진영에 들어선 신창무가 이영재의 태클에 걸려 넘어졌고,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그리고 신창무가 직접 키커로 나서 왼발로 골대를 가르면서 1-1을 만들었다. 신창무의 시즌 2호골.

이후 두 팀의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이 났다.

동점골을 장식한 신창무는 "부상으로 힘들게 올 시즌을 시작했는데 팀에 녹아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 그런 면을 감독님이 봐주셔서 오늘 후반전에 기회를 주셨다"며 "리그 마지막 경기였는데, 홈에서 하는 경기였던 만큼 승리를 하지 못한 게 아쉽다. 그래도 홈에서 아시아챔피언스리그 경기가 남아있다. 무엇보다 5경기에서 팀이 풀이 없었는데 뭔가 보여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 같아서 만족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광주는 27일 오후 7시 상하이 선화를 상대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ACLE 5차전을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신창무가 24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북현대와의 K리그1 38라운드 최종전에서 0-1로 뒤진 후반 47분 페널티킥을 넣고 있다. <광주FC 제공>

“잔류 했으니 실패하지 않았다”



광주FC 이정호 감독

신규 영입 불발·엄지성 이적 등 힘든 부분 많은 시즌이었지만 선수들 준비한 대로 잘해 줘 부족한 부분 개선해 팬 만날 것

광주FC 이정호(사진) 감독이 “잔류했으니 실패하지 않았다”고 2024시즌을 평가했다.

광주FC는 24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전북현대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4 38라운드 경기를 갖고 올 시즌 정규리그 일정을 마무리했다.

후반 29분 전북 티아고에게 선제골을 내준 광주는 후반 추가 시간에 나온 신창무의 페널티킥

골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정호 감독은 “ACLE이 있기 때문에 아직 마지막은 아니지만 K리그 마지막 홈이었다. 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년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선수들이 보여준 것 같다. 찬스에 비해서 골이 안 터졌다.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 선수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고, 선수들이 준비한 대로 잘 해줬다. 리그에서는 잔류했기 때문에 실패한 시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처럼 많은 분들이 경기장에 와주시면 좋은 경기로 보답을 하겠다. 팬분들 한해 동안 고생하셨다고 말하고 싶다”고 시즌 최종전을 평가했다.

이날 경기장에는 7957명이 입장해 뜨거운 응

원을 펼쳤다.

광주는 8개의 슈팅을 날렸지만 상대의 전방 압박 속 어렵게 시원한 골을 장식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이정호 감독은 선수들의 도전을 강조했다.

이정호 감독은 “준비대로 한 것 같다. 전방 압박에 고전했다기보다는 경기하다 보면 리스크를 안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선수들이 전방 압박 운다고 해서 안전하게 하면 성장하는 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계속 우리 추구했던 부분은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조금 더 용기를 내면 좋겠다. 그래야 골이 터지고 뭔가 이뤄진다. 그런 부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호 감독과 광주 선수들은 올 시즌 ‘우승’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14승 5무 19패(승점 47), 9위가 광주의 올 시즌 성적이다.

이정호 감독은 “우승을 바라고 시작을 했다. 기대를 많이 했던 해이다. 개인적으로 분석했을 때 득점하는 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18승 이상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18승이 목표였는데 못한 것은 많이 아쉽다”면서도 “여름에

(구단 재정 건전화 문제로)영입을 못 했던 부분이 좀 많이 컸던 것 같다. 영입을 못 하는데 엄지성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많이 아쉽다. 그리고 실점이 많았다. 실점에 비해 득점이 없었다. 실점 줄이고 득점 높일 수 있는 방법 생각해서 내년 시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목표했던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냉정한 현실을 생각하면 ‘만족’에 가까운 시즌이다.

이정호 감독은 “리그는 만족한다. 광주가 잔류했으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너무 기대치를 높여냈다. 잔류를 하게 되면 정말 잘한 건데 기대치가 높은 것 같다”며 잔류 성공에 의미를 부여했다.

아직 남은 시즌, 광주는 27일 오후 7시 상하이 선화를 상대로 ACLE 5차전을 치른다. 이게 올 시즌 홈에서 치르는 마지막 경기다.

이정호 감독은 “ACLE는 저한테도 선수들한테도, 광주FC의 큰 도전이다. 잘 준비해서 홈 마지막 경기에서 많은 팬분들에게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리그2 전남, 승강PO 좌절...이랜드와 2-2 비겨

프로축구 K리그2 서울 이랜드가 전남 드래곤즈의 도전을 뿌리치고 승격을 향한 마지막 관문인 승강 플레이오프(PO)에 진출했다.

이랜드는 24일 서울 목동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4 PO에서 전남과 2-2로 비겼다.

올해 정규리그 3위에 오른 이랜드는 90분 경기 후 무승부 시 정규리그 상위 팀이 승자가 되는 PO 규정에 따라 정규리그 4위 전남을 따돌리고 승강 PO에 진출했다.

2014년 창단해 2015년 K리그 챌린지(현재 K리그2)를 통해 프로 무대에 첫선을 보인 이랜드는 10시즌을 2부에서 보낸 끝에 첫 승격의 기회를 잡았다.

이전까진 2015년 PO에만 한 번 진출했던 이랜드는 올해 정규리그에서 구단 역대 최고 순위인 3위를 차지한 뒤 PO까지 통과하며 창단 첫 승강 PO에 올랐다.

현재 K리그 승강제에선 2부 우승팀이 다음 시즌 K리그1으로 자동 승격하며, 1부 최하위 12위는 2부로 강등된다.

K리그2 정규리그 2위 팀은 1부 11위 팀과 승강 PO를 치르고, 2부 3~5위 팀 중 한 팀이 PO를 거쳐 K리그1 10위 팀과 승강 PO에 나선다.

K리그2 4위와 5위의 준PO 승자가 3위와 PO를 벌이며, 여기서 이긴 팀이 K리그1 10위 팀과 격돌

한다.

이번 시즌엔 FC안양이 K리그2 정상에 올라 승격이 확정됐고, K리그1에선 인천 유나이티드가 최하위에 머물러 강등됐다.

2018년 K리그1 최하위(12위)에 머물러 창단 후 처음 K리그2로 강등된 뒤 올해까지 6시즌째 2부 생활을 한 전남은 정규리그 5위 부산 아이파크와의 준PO를 통과했으나 이랜드는 넘지 못한 채 다음을 기약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4호 도움' 토트넘, 맨시티 4-0 대파

한국 축구 간판 손흥민(토트넘)이 이번 시즌 '4호 도움'을 작성하는 맹활약을 펼치며 페르 과르디올라 감독 체제의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잉글랜드)에 통산 첫 5연패의 아픔을 안겼다.

토트넘은 23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4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맨시티를 4-0으로 대파했다.

11월 A매치(국가대표팀) 기간 흥명보호 축구 대표팀에서 연일 득점포를 가동하다가 토트넘으로 돌아간 주장 손흥민은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 도움 1개를 추가했다.

전반 13분에 나온 제임스 매디슨의 선제골로 앞서간 토트넘은 손흥민의 날카로운 패스 덕에 7분 만에 추가 골을 넣었다.

토트넘이 전방 압박 끝에 공을 탈취하면서 페널티지역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맨시티 수비진

의 허를 찌르는 침투패스로 문전으로 쇄도하던 매디슨의 득점을 도왔다.

올 시즌 손흥민의 네 번째 도움으로 지난 3일 애스턴 빌라전(4-1 승) 이후 2경기 만에 쌓은 공적포인이다.

손흥민은 승부의 추가 토트넘 쪽으로 확연하게 기울어진 후반 18분 브레넌 존슨과 교체돼 그라운드를 떠났다.

맨시티는 엘링 홀란, 필 포든 등 세계 정상급 공격수들이 출격했는데도 벤 데이비스와 라두 드루구신으로 꾸려진 토트넘 수비를 깨지 못했다.

오히려 존슨이 후반 추가 시간 티모 베르너가 문전으로 찰려준 침투패스를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토트넘의 4-0 대승을 완성했다.

시즌 6승(1무 5패)째를 신고한 토트넘(승점 19)은 6위로 경중 도약했다. /연합뉴스

